



수호이는 팀 인수 후 시험용 전투기인 I-3, I-14, DIP 등을 개발했고, 비행승무원인 V.P. 츠칼로프(Chkalov)와 M.M. 그로모프(Gromov)는 장거리 비행 기록갱신용 항공기를 이용, 62시간 17분 동안 10,148km를 비행하는 세계기록을 수립했다. 그리고 장거리용인 DB-2 폭격기는 모스크바에서 동북아시아까지 논스톱으로 비행을 했으며, 다목적 항공기인 BB-1(1940년 이후 Su-2로 알려짐)는 수호이 시리즈의 첫 항공기로 910대가 생산됐다.



수호이설계국 설립자인 P. O 수호이

당시 소련 정부는 BB-1 생산을 확정하기 위해 1939년 7월 29일 수호이를 설계국장으로 임명하고, 아울러 크라코프(Kharkov)에 독립된 항공기 생산시설을 갖췄다. 이후 수호이설계국은 Su-2 후속작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. 그 결과 수호이설계국은 단좌형 및 복좌형 Su-6 무장공격기의 원형기를 개발함으로써 수호이는 1943년 스탈린상을 수여받았다.

이용한 UTB-2 훈련용 폭격기 및 이를 이용한 승객 및 병력이송용 항공기, 그리고 Su-14 제트공격기 등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개발했다.

하지만 1949년 11월, 소련 정부가 설계국을 해체하면서 수호이 설계국의 운명도 다하는 듯 했다. 다행히 수호이설계국은 초음속 제트항공시대가 열리면서 1953년 5월, 새로운 생산시설과 함께 부활했고, 초기 프로젝트로 초음속 전투기인 S-1 및 T-3 개발을 추진했다. 이 중 S-1은 전투폭격기로 Su-7, Su-17 등 20여 형태의 계열기가 개발되는 데 플랫폼 역할을 했다. 특히 Su-17 전투기는 소련의 가변후퇴날개를 가진 첫 항공기가 됐다. 실험용인 T-3은 소련의 표적요격용 대공미사일 시스템인 Su-9-51과 Su-11-8M, 그리고 Su-15-98(M) 시스템의 플랫폼으로 사용됐다.

1962년 수호이설계국은 장거리 타격



정찰용 항공기인 T-4 개발에 착수, 1972년 8월 22일 원형기가 첫 비행을 실시했다. T-4는 소련에서 개발된 첫 플라이-바이-와이어 장착 항공기로 자동스로틀 제어가 가능했으며, 기체는 티타늄과 강철을 용접해 제작됐다. 그리고 1969년에는 가변후퇴날개가 적용된 Su-24 전천후 폭격기가 첫 비행을 실시했으며, 몇 가지 변형기도 개발됐다.

1975년에는 전장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Su-25 공격기가 첫 비행을 실시했다. 특히 Su-25는 제트폭격기로서는 소련에서 첫 대량생산된 기종으로 여러 변형기

들이 따라 개발됐다. 이와 함께 수호이설계국은 1969년부터 4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결과, 1977년 Su-27 전투기의 원형기를 개발해 첫 비행을 실시했으며, 이때 개발된 Su-27 플랫폼은 이후 모델인 Su-27UB, Su-30, Su-32, Su-33 등의 플랫폼으로도 이용됐다. 수호이설계국은 또한 새로운 설계와 소재, 그리고 공학적 기술을 이용한 실험용 항공기 Su-47(Su-37)도 개발, 1997년 첫 비행을 실시했다.

수호이설계국은 다년간의 항공기 개발을 경험으로 Su-26, Su-29, Su-31 등 공중곡예용 항공기도 개발해 인기를 끌었다. 특히 이들 곡예용 항공기들은 전 세계 및 유럽 챔피언십 등에 참가해 33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.

한편, 수호이설계국은 1990년대부터 상업용 항공기 개발에도 참여, 수송용 Su-80GP와 농업용 Su-38L 등을 개발했으며, 현재는 수호이민간항공(Sukhoi Civil Aircraft)을 설립, 리저널항공기인 슈퍼제트100을 개발 중이다.

내수보다 수출에 주력

현재 수호이는 전투기 수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러시아 무기 수출기관인 로소보론엑스포트(Rosoboronexport)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. 이 중 Su-27 및 Su-30 전투기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이다. 러시아는 2004년 기준 전체 군수용 수출물량 중 40% 가량이 항공기 분야에서 거둬들이고 있



함재전투기용으로 개발된 Su-33 전투기



많은 계열기를 만들게 한 Su-27(위), 공중곡예용으로 개발된 Su-31(아래)

으며, 그 규모는 약 56억 달러에 이른다. 특히 수호이는 지난해 약 1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수출물량이 전체의 약 95%를 차지하고 있다.

1996~2003년 동안 로소보론엑스포트는 총 12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, 수호이 전투기를 납품하거나 면허생산을 이끌어냈다. 이 중 말레이시아는 수호이 항공기를 도입하는 30번째 국가가 됐으며, 수호이의 기술지원 아래 약 250대의 수호이 항공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될 예정이다.

수호이는 항공기 인도에 앞서 잉여부품과 유지관리에 대한 직접 납품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. 이에 대한 이윤으로 2003년 수호이는 약 1,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, 2004년도에는 총 1억 3천5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어 2005년도에도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둬들였다.

최근 몇 년간 수호이는 러시아 항공산업을 이끄는 선도업체로 거듭난 것은 물론 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. 이는 최근 <디펜스 뉴스 데일리>에서 선정한 전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수호이가 28위를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잘 증명해 주고 있다.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수호이의 항공기는 전 세계에서 생산된 항공기 중 14%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6%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또한 수호이의 수출품들은 면허 및 협력 생산을 포함하면 전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 약 25%를 차지하고 있다.



실험용으로 개발된 Su-47(Su-37) 전투기

초대 설계국장인 P.O. 수호이를 시작으로 Ye. A. 이바노프 (Ivanov), M.P. 시모노프(Simonov), 그리고 1999년부터 CEO를 맡고 있는 M.A. 포고스얀(Pogosyan)에 이르기까지 수호이는 약 100여 종류의 항공기를 개발했으며, 이 중 60여개 종류 이상이 양산됐다. 그리고 현재까지 약 1만 여대의 항공기를 생산해 이 중 2천여 대가 30여개국에 수출됐다.

■ 주요 제품군

· 군용기

- Su-22M3~M4 : 초음속 전폭기
- Su-24MK : 폭격기
- Su-25K : 단좌식 아음속 공격기
- Su-27SK : 초음속 전투기
- Su-27UBK : 개조형 훈련기 및 전투기
- Su-30MK : 복좌식 전투기
- Su-32 : 복좌식 전폭기
- Su-33 : 단좌식 함재 전투기

· 민항기

- Su-80 : 다목적 수송기 Multi-role mixed cargo aircraft
- Superjet 100 : 리저널기 Russian regional jet
- Su-26, 29, 31 : 공중극예용 항공기 The Sukhoi aerobatic aeroplanes
- Be-103 : 상륙강습용 항공기

현재 수호이는 미래 장기발전전략에 따라 무인기 및 초음속 비즈니스제트 개발을 진행 중이다. 특히 무인기는 대공감시를 비롯해 지상 및 해상 감시, 환경감시, 항공 및 해상관제, 그리고 통신시스템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.

2004년 수호이는 Su-27SM에 대한 1차 정부시험과 Su-24M2 및 Su-25SM 성능개량형에 대한 시험을 끝냈으며, 개량을 위한 업무는 KnAAPO 및 NAPO 생산공장과 항공기 정비장에서 시작됐다. 같은 해 12월에는 2006년까지 개량된 Su-27SM 전투기를

수호이의 무인기 개발계획

	ZOND-1	ZOND-2	ZOND-3
임무	항공관제, 통신중계	다중스펙트럼 감시	다중스펙트럼 감시
너비	35m	35m	16m
길이	13	13	9.5
높이	5.5	5	3
최대이륙중량	12,000kg	12,000kg	2,000kg
최대탑재중량	1,500kg	1,500kg	500kg
최대비행속도	마하 0.5	마하 0.5	250km/h
순항고도	14,000~16,000m	14,000~16,000m	200~8,000m
순항거리	12,000km	12,000km	2,500km
탑재장비	위상배열레이더, 통신 및 TV 링크 중계장비	전자광학시스템, 합성개구레이더	전자광학시스템, 합성개구레이더



최근 몰아웃한 슈퍼제트 100



슈퍼제트 100 객실

러시아 공군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. 또한 수호이는 다목적 타격 항공기인 Su-34에 대한 1단계 시험을 이미 완료했으며, 5세대 전투기에 대한 개념설계도 승인을 받았다.

수호이는 향후 10년간 연간 약 15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를 비롯해 리저널 항공기인 슈퍼제트(Supet jet) 100을 개발, 연간 약 10억 달러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특히 슈퍼제트 100은 75~95인승 리저널기로 2006년 7월, 기존 러시아 리저널 제트(Russian Regional Jet, RRJ)에서 슈퍼제트 100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, 지난 9월 26일 몰아웃을 한 데 이어 11월 13일 첫 비행을 위한 필수과정인 동적시험을 실시했다.

현재 러시아 파이낸셜 리싱 컴퍼니(Financial Leasing Company)가 슈퍼제트 100-95 10대(옵션 10대)를 주문한 것을 비롯해 러시아 에어로플롯(Aeroflot)이 슈퍼제트 100-95 45대(옵션 20대),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에어라인(ItAli Airlines)이 슈퍼제트 100-95 10대(옵션 10대) 등 총 98대(옵션 73대)를 주문했다. 이 외에도 수호이는 에어프랑스, 루프트한자, SAS, 이베리아 항공 등을 잠재 고객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. ☺